



단 돈 1천원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의 행복'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인 콘텐츠다.



'친절한 공연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광화문 문화마당' 공연 모습.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자리한 세종문화회관. 최근 광화문 광장과 인접한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 공공유적지 등 47개 문화예술기관을 하나로 묶은 '세종벨트'를 통해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발돋움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도심 한복판 문화충전 77년... 한국공연계 '산역사'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7)세종문화회관

문화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34년 전신인 부민관(府民館)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다목적 회관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우남회관, 시민회관으로 개명되었다가 1974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면서 1978년 4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으로 개관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규모의 공연장과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강당, 소강당, 회의장, 전시장, 연회장, 지하주차장 등을 갖췄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등 국가행사의 단골 장소로 이용된 연유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 6122평, 부지면적 5611평)의 세종문화회관은 한국의 옛 건축양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해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준다. 개관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어오다 지난 1999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위해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역사만큼이나 자랑거리가 많은 아트센터다. 무엇보다 국내 공연계에서 가장 많은 '패밀리'를 거느리고 있다. 공연장으로 본관의 대극장(3022석)·M씨어터(630석)·체임버홀(430석)·서울 남산극약당, 전시장으로는 본관 지하에 들어선 세종이야기·세종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는 세종 예술의 정원·삼청각·북서울 꿈의 숲, 교육기관으로는 세종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뮤지컬단, 극단, 오페라단, 유스오케스트라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등 9개의 시예술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 한해 예산 400억원 가운데 서울시의 출연예산은 230억원, 나머지 170억원엔 터

공연장·아카데미·9개 시예술팀 등 국내 최대 패밀리 운영
'천원의 행복' 등 문턱 낮춘 프로그램으로 문화나눔 활발
47개 예술기관 묶은 세종벨트 '한국의 브로드웨이' 발돋움

켓관매와 대관수익, 부대사업 등으로 충당했다. 재정 자립도는 41%로 공공기관으로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큰 덕목은 '문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천원의 행복'이 좋은 예다.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재즈, 퓨전국악, 인디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공연을 단 돈 천원에 감상할 수 있는 가격적인 시도는 매회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일반인은 물론 쪽방촌, 노숙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까지 17만 명이 천원의 행복을 누렸다. 세종문화회관 건물 옆 중앙계단의 특수 무대에서 펼쳐지는 '광화문 문화마당' 역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친절한 공연장'의 핵심콘텐츠다.

또한 한국형 열 시스템인 '곰나무 오케스트라'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분신인 '세종나눔 앙상블'도 '열린 공연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재능있는 저소득

층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제공하고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곰나무 오케스트라'에는 현재 30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8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영감을 받은 '세종나눔 앙상블'은 한때 악기를 배웠지만 '무대'에 서지 못한 늦깎이 연주자들로 뭉친 아마추어 실내악단이다. 교사에서부터 의사, 심리대 수리공, 연구원, 비서까지 직업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나같이 뜨겁다. 지난 2009년 창단연주회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은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세종예술아카데미가 바로 그것. 이 가운데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약 12시~1시)을 겨냥한 '정오의 문화예술강좌'와 CEO들의 예술감상을 위한 '세종트네상스'는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임연숙 교육전시팀장은 "도심에 위

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부나 대학생 보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오페라, 발레강좌를 선보이고 있다"면서 "평소 회사일 때문에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번 공연장을 찾는 CEO'를 슬로건으로 내건 '세종트네상스'는 감상경영자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9년 6개월 과정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지 1200여 명의 '문화리더'들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CEO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든든한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세종문화회관은 '한국의 브로드웨이'를 표방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하여 '세종벨트', 광화문 광장과 인접해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 공공유적지 등 47개 문화예술기관을 하나로 묶어 티켓 한장으로 공연과 식사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통합패키지다. 지난해 세종벨트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 헤치마당에 개관한 '세종벨트통합티켓팅·인포센터'에는 불과 1년 만에 28만 명 이상의 관광객(외국인 3만명)이 다녀갔다.

세종문화회관의 김화영 홍보과장은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펼쳐지는 '광화문 S-데이'는 1만원으로 누구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 런던의 웨스트엔드처럼 세종벨트를 서울의 문화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PREMIUM BUFFET IELYSIA
 NH N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銀江 한정식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름철 고객님의 맛과 건강을 위해
銀江이 혼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엄나무 삼계탕

옛날방식 그대로 모든 음식을 어머니의 고집대로
 우직하게 재래식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단계 높은
 한정식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특별
 ● 닭장 떡국
 ● 굴국밥

구.MBC 한국통신
 구.남영고후문 강남역고후문 북계도로
 구.동부경찰서 구.중앙시장
 구.충무로역 구.충무로역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북계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 · 4986